

Galatians 5-6

Tape #C2599

By Chuck Smith

Chapter 5

Shall we turn now to Galatians chapter five. The whole concept is: how do I establish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Can I b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Or am I righteous by my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Now, Paul taught righteousness through faith. There followed Paul teachers, Judaizers who brought another gospel, which was not really a gospel. For they were saying that was it was necessary to be circumcised and to keep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be righteous before God, to be saved. And so Paul is standing against this teaching in his letter to the Galatians, and in chapter five, he said,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5:1).

갈라디아서 5 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 지는가? 이제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것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교 선생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할뿐더러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 이 가르침을 반대 합니다.

제 5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Now, in the fifteen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when this same issue had arisen in the church in Antioch, when certain of the brethren came down

from Jerusalem and were hassling the Gentile saints in Antioch and said, "You can't be saved unless you are circumcised and keep the law of Moses," Paul and Barnabas and others from Antioch took these brothers right back to Jerusalem, because they came unto the pretense of, "We have the authority of the Jerusalem church to declare these things." So, they went right up to settle the issue, and the church had one of the first church councils gathered to settle a dispute, a problem within the church.

사도행전 15 장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 안디옥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혼란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곧장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으로 온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것들을 선언 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하기에 그들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 안의 이 분쟁을 해결 하려고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And in the fifteenth chapter of Acts, we read how that Peter stood up and told the brethren how that the Lord had called him to go to the Gentiles to the house of Cornelius. And how the Holy Spirit had come upon those of the house of Cornelius who had known nothing really of obedience to the law. And Peter said, "I suggest that we not place a yoke of bondage on them which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So, Peter uses this same phrase to describe the law as a yoke of bondage. He said, "We haven't been able to keep the law, why should we put them under it?" And so, Paul is picking up, now, the same phrase. No doubt he heard Peter use it there in Acts 15, and he said, "Stand fast in the liberty wherein Christ has set you free."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집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율법의 순종 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사도행전15:10).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똑 같은 구절을 사용하며 율법을 속박의 멍에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멍에아래 있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같은 구절로 계속 말합니다. 사도해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구절을 바울이 들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굳세게 서라 .”

Now, let us not believe or think that this liberty that we have is the liberty to do anything we might want to do in the flesh. That is not the liberty that we have as Christians. The liberty that we have is not to do the things of the flesh. Thank God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from my bondage to my flesh. I once was in horrible bondage to my flesh. But now I have liberty in Christ Jesus, for I don't have to follow after the flesh anymore. So "stand fast in that liberty wherein Christ has made you free." He has set you free from the power of the flesh. Don't be entangled again with rules, regulations, a yoke of bondage.

Behold, I Paul say unto you, that if ye be circumcised, Christ shall profit you nothing (5:2).

자,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자유라고 믿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육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는 무서운 육신의 속박 아래 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육의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그분이 여러분을 육신의 권능으로부터 자유 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제도와 법과 속박의 멍에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5:2)

That is, if you are circumcised ritually for the purpose of having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If that is the purpose, you're thinking that it's going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you think it's going to make you acceptable before God, Paul said, "Christ will profit you nothing," if that's your mental attitude towards your circumcision.

For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that is circumcised, that he is a debtor to do the whole law (5:3).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적인 할례를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락 될 수 있도록 만들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또한 만약에 그것이 여러

분의 할례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인 태도라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고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 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5:3)

In other words, if you're going to take this as an act of righteousness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as being a part of the law, then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keep the entire law in order to be righteous before God. For if a man “keeps the whole law, yet he offends in one point, he is guilty of all” (James 2:10). So “cursed is the man that continues not in the whole law to do that which is written therein” (Galatians 3:10).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of you who are justified [or seeking to be justified] by the law; ye are fallen from grace (5:4).

바꾸어 말하자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의 일 부분이므로 의로운 행동으로 받아 들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2:10).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10).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4)

Very powerful words for those who would seek justification through the law, through rules, through keeping rules, through keeping ordinances. If you're looking to that as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then you are not experiencing the grace of God in your life. Now, the whole idea is to be righteous before God in order that I might have fellowship with God. “What fellowship hath righteousness with unrighteousness?” (2 Corinthians 6:14) How can I really fellowship with God if I'm unrighteous? So I must be righteous in order to have fellowship with God.

율법이나 규율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나 제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능력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견해는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고린도 후서 6:14)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사귀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를 가지기 위해 내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Now, there are two ways that I can be righteous. I can say, "Well, this, these are the rules of righteous living. You've got to do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you can't do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I can set up these rules, and I can get out my little gold stars. And at the end of each day, I can paste my gold stars on those that I've kept. But if I have a whole page of gold stars but yet there's one little point over here where I blew it and I can't put a gold star, then I'm unrighteous. I violated. "If you keep the whole law yet offended in one point, you're guilty of all."

내가 의로워 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흠, 이것들이 의롭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것과 이러 이리한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러 이리한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규율을 만들어놓고 매일 그날이 끝날 때 나는 조그마한 금 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규율을 지켰기에 나는 그 금 별을 나의 도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도표를 금 별로 가득 채우는데 여기 한구석에 내가 잘하지 못한데가 있어 나는 금 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법을 어겼으므로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야고보서 2:10)

Now, the other way to be righteous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receiving that grace of God through Him, where God accounts me, as He did Abraham, righteous because I believe. Now, that righteousness depends upon the work of Jesus Christ as my sacrifice, as my substitute. It is predicated upon the work of God. Therefore, that righteousness is perfect. It will stand. And it is given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That's what God account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ccounted to my account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나 의롭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과 같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십니다. 그 의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완전한 것

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것이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Now, because I can't keep the first, I have opted for the second. Because I can't and haven't kept the whole law, I'm thankful that God accounts me righteous and I can have fellowship with the righteous God because of Jesus Christ and my faith in Jesus Christ. Now, if you're trying to be justified before God or being made righteous before God by the keeping of the law, then Christ is of no effect to you. You can't be both.

For we through the Spirit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5:5).

이제 첫 번째 것은 내가 지킬수 없으므로 두번째 것을 선택 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나의 믿음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양편이 다 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5:5)

That's the position where we stand. By the Spirit of God, we're waiting for that hope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For in Jesus Christ neither circumcision avails any thing, nor uncircumcision; but faith which worketh by love (5:6).

So, I think Paul could also have included here baptism or no baptism as far as the physical immersion in water. He's talking about rituals and the power of rituals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and the issue is, they can't. What makes you righteous before God is your faith, which works in love within your heart and life.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5:6)

그래서 내 생각에 바울은 신체적으로 물속에 잠기는것에 관하여 침례나 아니나 하는것도 여기에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의식과 의식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 과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Now,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those who opt for rules, those who opt for laws, those who want to lay down the laws upon the people, or those who want to live under the laws that are laid down upon them, always seem to be striving. We have those that come around here. They're wanting to strive, they're wanting to argue; they're wanting to prove their points how that baptism is essential for salvation. And they want to get on our case because we don't run down every night and baptize people the moment they're saved. Because we wait to have our baptisms 'til the water gets warmer.

내게 흥미로운 것은 규칙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율법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는 사람이 자신도 법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애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들은 다투기를 원하며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녁에 달려 내려가 사람들이 구원 받자마자 당장 침례를 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의 일을 간섭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할 물이 따뜻해 질 때 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baptism doesn't save. It's faith in Jesus Christ that saves. It's the operation of God's Spirit within our heart that works through love. Not contention. Not striving. But it works through love. And any kind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at causes me to strive with my brother, causes me to become contentious, is really something that I'm not interested in. Causes me to become judgmental. It's faith which works by love.

그것은 침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고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와 다투게 하며 논쟁 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 행하는 믿음입니다.

Now Paul said,

Ye did run well (5:7);

Again, you remember he said, "You did start well. What did hinder you? Ye did run well." Having begun in the spirit, you did all right in the beginning, but

who did hinder you that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This persuasion cometh not of him that calleth you (5:7-8).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달음질을 잘하더니 (5:7);

다시금, 그가 말한 것을 기억 하십시오. “시작은 잘 했는데 무엇이 너희를 막더냐? 너희가 달음질을 잘했다.” 성령으로 시작 해서 처음에는 잘하더니, 그러나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5:7-8)

In other words, you did not get this from God. I really like to say that to the Jehovah Witnesses that come to my door. “This persuasion didn’t come from Him who called you.” You couldn’t believe the things the Jehovah Witnesses believe, unless you read their screwy attitudes and ideas in their books. I mean, you never get it from reading the Bible and waiting upon God. Your mind has to be bent in that direction through their writings. And so with the Mormons. You never come to believe in what the Mormons believe through reading the Bible. It comes by reading the book of Mormon. “This persuasion, this ideas that you have, they don’t really come from God, from the One who called you. They are ideas that have been planted in your mind by men.”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이 말을 나의 문을 두드리는 여호와 증인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설득력이 당신을 부른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책에 있는 빼놓여진 생각과 태도를 읽어 보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될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 방향으로 구부러져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몬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서 물몬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게 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각들이나 설득 시키려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 생각 들은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심겨진 것들입니다.”

Now, a lot of times when people come to me with some weird concept, I'll say, "Where in the world did you get that idea?" And sometimes they'll lie to me. And they say, "Oh, well, I was just waiting upon the Lord and reading the Scriptures, and the Lord showed this to me." I said, "That's a lie." "Here, I'll show it to you in this book." "Have you been reading this book?" "Well, yeah, I read that book but, you know, God showed it to me." No, this persuasion doesn't come from Him who called you. You weren't persuaded to be circumcised because God was speaking to your heart and convicting you of this. These concepts, these heresies that develop within the church are passed on by men. They don't come to man from God.

여러 번 사람들이어떤 괴상한 개념을 가지고 나를 찾아 올때, 나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주께서 이것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이 책에서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어, 예, 내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부터 온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 하시고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할례를 받도록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의해 개발되어서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And the Jehovah Witnesses, just the Arian heresy of the early church. The prosperity doctrines of the gnostic heresy of the early church. They're just warmed over, put in a new coat, and declared by a fresh voice, or sometimes the voices aren't so fresh, but they're things, concepts that... And you find that these people espousing them are plagiarizing from other people who have espoused them, and it goes back and back and back. But not from God. That is why I encourage you just to read the Bible. I am not at all worried about anything you will come to believe by just simply reading your Bible. I don't think you need anything more than the Bible to really know the truth of God. And I encourage you to just read your Bible.

여호와 증인들은 초대 교회의 아리안파의 이단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의 변영의 교리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뒤집어쓰고 신선한 목소리로 선언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목소리는 신선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것들, 관념이 신선한 것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그들의 사상이나 문장이나 사고를 표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그 근원에까지 돌아가며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 믿음에 이를 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에게 성경 외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권장 합니다.

Now, why is it that Jehovah Witness can't tell you that? Because you'll never come to their beliefs just by reading the Bible. Why can't the Mormons tell you that? Because you'll never come to their beliefs by just reading the Bible. So the minute I start peddling books and saying, "Now, to really understand the Bible, you better read my books, because you'll just, you know, read the Bible, you'll be in darkness. It's just, you know, too difficult. Just let our books explain for you." "This persuasion didn't come from God."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5:9).

그럼 왜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절대로 그들이 믿는것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 물문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들이 믿는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시한 책들을 읽으려 하는 순간 말하기를 “이제,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려거든 내 책들을 읽는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성경만 읽으면, 어두움에 헤메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책들이 잘 설명할것이니 읽으세요.” “이 권편이 하나님에게서 난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5:9)

You open the door for a little error, and it will soon magnify because you see, as you've opened the door for this error, then as you are challenged on the flaws of the error, you're going to have to develop further doctrines to cover or further concepts to cover, and pretty soon, you're going to be way out in left field.

여러분이 조그마한 오류에 문을 열면, 여러분이 실수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

이 곧 확대 될것입니다. 그러면 오류의 폭풍우와 싸워야하며 그것을 감싸기 위해 더 많은 교리와 또는 더 깊은 개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여러분은 외진 곳으로 떨어져 갈것입니다.

There is a group called Jesus Only, and they believe that Jesus is the Father, He is the Son, He is the Holy Spirit. It's Jesus only. Unitarians. And they are quite zealous in their beliefs, very fervent in the proclamations of their beliefs. And I had some who were determined that they were going to convert me to their way of thinking.

오직 예수(Jesus Only) 라고 부르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아들이며 또 예수가 성령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유일신교도들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것을 선언할 때에도 매우 열광적입니다. 몇 사람이 나를 그들의 생각의 방식으로 전향 시키려고 결심한 몇사람을 압니다.

And I would listen to them and listen to them and listen to them; I don't really make a practice of arguing scriptures. And so, I would listen to these fellows, and I listened, you know, and just said, "Well, you know, that's what the scripture says, you know," when they would quote scriptures. Well, they thought that they had me convinced to their way of thinking. And so, they started telling people, "Well, Chuck believes this." And so then I had to go out to them and say, "Hey, you haven't convinced me of the truth of what you're declaring. I don't believe that." And then they started to rail on me and prophesy my death and things of this nature.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 구절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들은 후에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때, 그냥 내가 말하기를 “흠, 아시다시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나를 납득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 합니다. “그럼, 척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로 나를 납득 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들은 나를 불평하며 나의 죽음을 예언 하며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And so I said, "All right, tell me, when Jesus was baptized, who spoke and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Is He a ventriloquist? When in the garden, or when on the cross, Jesus cried,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Matthew 27:46) Who was He crying to? "Oh, well, He laid down His divinity before He died." I said, "Oh oh oh oh oh," you see,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Now you're, you know, chopping Jesus up, and said, "Well, He is God here, and but, for a while He wasn't God and the universe was without God for a little bit here, or whatever. And, you know, I mean, you're having now go to...you've taken a position Jesus is the only One. Now you've got to defend it against the challenges and so you've got to start making up or taking positions that are thoroughly unscriptural in order to defend your position." And a little leaven soon leavens the whole lump.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때 누가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 3:27) 말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가 복 화술자 입니까? 그가 동산에 계실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때 예수께서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태 27:46)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향해 외쳤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신성을 죽기 전에 내려놓았습 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오, 오,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제 당신은 예수를 조각으로 잘라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잠시동안 하나님 없이 여기에 있었 습니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의 뜻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 는, 오직 예수님 한분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것을 방 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의 구절이 아닌 것들을 당신의 위치를 방어하기 위하 여 둘러대야 하며 또는 주장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Even though it might be a minor departure from the truth, be careful. Try and stay right on course. If, when I got on board a 747 at LAX heading for Honolulu, the captain would say, "Now, folks, we're having a little problem here with our navigation instruments. We're about one degree off, but we hope to correct this in flight or something." I'd say, "Open the doors and let me off." If your navigational instruments are one degree off, and you take your heading and you start for Hawaii, by the time you've gone that distance, you'll miss Hawaii by two hundred and forty miles.

사실로부터 조금만 빗나간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로스엔젤리스 공항에서 747 여객기를 타고 호놀룰루로 간 다고 합시다. 비행기 기장이 말하기를 “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조금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일 도쯤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기는 비행중

에 고치거나 어떻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문을 열어 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항공 나침반이 일도 정도 빗나간 상태에서 호놀룰루로 향해 간다면 그 목적지에 도착 할 즈음이면 여러분은 하와이에서 240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Oh, by the time you get to Santa Barbara, you won't even notice anything. You know, you can look down and see the Channel Islands. You can see the Santa Rosa and San Miguel and San Nicolas and say, "Hey, hey, all right, we're right on course." One degree, and you've only gone hundred miles, you don't even notice. But you continue one degree off on out over the Pacific, and you can miss your destination completely.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Now Paul said,

I have confidence in you through the Lord, that ye will be none otherwise minded (5:10):

오, 여러분이 산타 바바라에 도착 했을 즈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널 섬들을 내려다 볼 것이고 여러분은 산타로사 그리고 산 미구엘 그리고 산 니콜라스를 볼수있을 것이며 말하기를 “여봐, 괜찮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도 차이나면 오직 백마일의 차이이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 도씩 빗나간 상태에서 태평양 바다 위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목적지를 완전히 놓칠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5:10):

Now Paul is now saying, "Oh, who did hinder you, you know, and this teach and all. But I have confidence in you that you're not going to be persuaded by this. That you're not going to be otherwise minded."

but he that troubleth you shall bear his judgment, whosoever he be. And I, brethren, if I yet preach circumcision, why do I yet suffer persecution? then is the offense of the cross ceased (5:10-11).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오, 누가 너를 막으며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러한 가르침에 설득되지 아니할 것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5:10-11)

Now, evidently these Paul people were saying, "Well, Paul was circumcised and he's preaching circumcision. You ought to be circumcised, you know." And Paul said, "Hey, wait a minute. I have not. If I preach circumcision, then why would they keep persecuting me? The offense of the cross would cease." Paul was preaching that Jesus paid the complete price for your redemption on the cross. There's nothing that you can add to what Jesus paid. That it is His sacrifice for your sins that brings you redemption and the forgiveness of sins. No effort, no work on your part. You can't do anything to buy redemption. You can't do anything to buy 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r redemption is totally predicated upon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upon the cross.

이제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또 그는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잠깐만! 나는 할례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왜 그들이 나를 핍박을 합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도 그쳤을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의 구속의 대가를 완전히 치루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지불한 것 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의 희생은 여러분을 구속과 죄의 용서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함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이나 용서를 사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용서와 구속은 전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se people were adding to it. "The death of Christ for you isn't sufficient. You got to walk the tight rope. You got to keep the law. You got to be circumcised." The message of redemption through the cross was offensive. People were trying to add to it. And that's why Paul was persecuted by the Jews, because he was saying, "The law of Moses is not necessary for righteousness or for salvation. You are saved through the finished work of Jesus on the cross. The cross paid it all."

Paul closes this little section on the idea of circumcision and all and he gets a little testy with those. He said,

I would [wish that] they were even cut off which trouble you (5:12).

사람들은 그것에 더 가미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에게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긴장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메시지는 거슬리는 것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덧붙이려고 시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은것은 이런 말을 했 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의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부분을 할례의 개념과 모든 것에 대하여 끝을 내기를 그들에게 성가시게 하는것들에 대하여 말하며 끝을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5:12)

Or literally, "I wish they were castrated who trouble you. They're trying to cause you to be circumcised, I wish they were castrated." Naughty Paul. We find that offensive in our society today, but in those days, the area of Galatia was the center of the worship of Sybil, and the priests of Sybil would castrate themselves. And so, it was something that was quite familiar the castration. And of the priest of this pagan god. And so, the people of Galatia understood exactly what Paul was talking about. And let's go on. I could quickly get in trouble.

For, brethren, ye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only use not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serve one another (5:13).

또는 문자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할례 받을 것을 권장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장난꾸러기 바울입니다. 요즈음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거슬리는 것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갈라디아 지방은 시빌이란 여신을 숭배 하던 중심 지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빌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거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신의 제사장들이 거세 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5:13)

Again, it is not a liberty to do anything I please. It isn't a liberty to live after my flesh. That is not what Christian liberty is about. And if you have interpreted it that way, you have completely missed the message of the scripture. "You've been called unto liberty." That is, liberty in Jesus Christ. Liberty from the law and from the bondage of the law, because that cannot make you righteous. But the liberty is not a liberty to indulge my flesh in anything that I may desire to do after the flesh. It is the liberty not to do those things which the flesh once forced me to do. So, "do not use your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the real key is love, "serve one another."

For all th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even in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5:14).

또 다시 말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는것이 자유가 아니며 나의 육체를 좇아서 사는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자유를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뜻을 완전히 오해 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에 매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육체를 좇아 하고 싶어하는것을 무엇이든지 육신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란 내 육체가 내게 억지로 하게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정말 중요한 요점은 사랑입니다. **“서로 중 노릇 하라.”**

은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5:14)

So,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One of the lawyers one day challenged Jesus as to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Jesus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with all thy soul, with all thy mind and with all thy strength; and thy neighbor as thyself. And in these are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22:37-40).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If I am walking in the Spirit, if I am walking in love, then there can be no law to regulate my life. You see, laws are for unprincipled people.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도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마태복음 22“37-40).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행하며 또 사랑으로 행한다면 내겐 어떤 율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If a person is living by right principles, he doesn't need any laws. He is governed by principles by which he lives. Laws are necessary to restrain unprincipled people. Now, if you're walking in love, supreme love for God and supreme love for your fellow man, then there is no law. All of the law is fulfilled. For what the law is actually saying to you is that you should love God supremely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at's all the law is saying to you.

But if ye bite and devour one another, [you better] take heed that ye be not consumed one of another.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and ye shall not fulfil the lust [desires] of the flesh (5:15-16).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원리 대로 살면 그는 아무 법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란 부정직한 사람들을 제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을 하며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최상의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는 율법이 없고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전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15-16)

So, Paul here exhorts us to walk in the Spirit and to live after the Spirit or on the spirit side of our lives. Now, man was created and by God as a living spirit. Created by God, in fellowship with God. God is a superior Trinity; man is an inferior trinity. The superior Trinity is made up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 inferior trinity is spirit, soul and body of man. And it is in the realm of the spirit where man meets God. That's where I come in touch with God. That's where God touches me. In my spirit, in the realm of the Spirit. His Spirit bears witness with my spirit that I am a child of God.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거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령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사귄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월한 삼위 일체 이시며 사람은 열등한 삼위일체입니다. 우월한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구성되었고 열등 삼위일체는 사람의 영, 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곳입니다. 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 갑니다. 성령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Now when Adam sinned, his spirit died just as God had warned, “In the day that you eat, you will surely die” (Genesis 2:17). His spirit died, and Adam broke fellowship with God. For God would not fellowship with man dominated by his flesh. And of course, that’s exactly what the temptation led Adam to is fleshly domination. He saw that the tree was pleasant to look upon, it was tasty to eat and it would make him wise as Go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and the pride of life” (1 John 2:16). And they ate, giving over to their fleshly appetites and in so doing, the flesh dominated. The flesh began to rule, and man’s consciousness was now filled and absorbed with the body needs and the body appetit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 하신 그대로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7) 그의 영은 죽었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교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담이 육체의 지배를 받도록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보기 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맛있고 또 그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한일서 2:16)** 그들은 먹어 육체적 욕구에 빠져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육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육이 통치하기 시작 했으며 사람의 의식이 이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빠졌습니다.

God did not intend man to live that way, because man living that way is alienated from God who is a Spirit. When the emphasis of man became on the physical fleshly side of him, he no longer was one with God, who is a Spirit and must be worshipped in spirit and in truth. And so in the fullness of time,

God sent His Son to die for man's sin, in order that through Him man might be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nd become again a spiritual being.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면이 되었을 때 그는 영이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 받으실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또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And so, when Nicodemus came to Jesus, Jesus faced him immediately with this issue. He said, "You've got to be born again." He said, "What do you mean? I can't go back to my mother's womb and be born again.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sus said, "I'm not talking about that.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but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n't marvel when I say, 'You've got to be born again.'" And Jesus talked to him about the spiritual rebirth, which takes place when a person by faith receives Christ as his Savior. There is a work of God's Spirit within his heart, and he is born of the Spirit, and now again has a spirit that is alive and is conscious of God. And this is the thing that you try to describe to people, and they don't understand.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즉시 그 앞에 이 문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무슨 뜻 입니까? 나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6).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 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므로 그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이 다시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묘사 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The Bible says, “The natural man can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But he that is spiritual understands these things, though he is not understood. And to try to explain to people the things of the Spirit to the natural man, to try and explain the things of the Spirit has got to be one of

the most frustrating things in the world. Because you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you can see it, you can understand it; it's as plain as can be. But because they are not born of the Spirit and have no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dimension of life, you're talking riddles to them. You're talking nonsense.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 이니라.**(고린도전서 2:14)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과 영적인 일을 설명하려는 것이 은 세상에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쉽게 볼수도 있고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삶의 차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amazing, isn't it, what difference being born of the Spirit really makes. In my attitude towards life. In my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In so many things. Suddenly, I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things suddenly are illuminated. Things which were once a mystery and I couldn't understand are now very understandable. They're just revealed by the Spirit. The truth of God to our hearts.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 났다는 것이 무엇을 정말 다르게 한단 말입니까?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물이 갑자기 조명을 받은 것 같이 빛이 납니다. 전에는 신비했던 것들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나타내주셨습니다.

So, you has he made alive who were dead because of your trespasses and sins. Who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among whom we all had our manner of living. As we lived to fulfill the desires of our flesh and of our mind, and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But God has made you alive in Christ Jesus. And now your spirit is alive. And your spirit being alive, again you can experience fellowship with God, the joy, the blessing of fellowshiping with God.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살았고, 여러분의 영적 존재가 살았으며, 다시 하나님과 교제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So, "walk in the Spirit." That is, walk in fellowship with God. Walk on the spiritual side of your nature. And if you do, you will not be fulfilling the desires of your flesh. The flesh will not be ruling over you anymore. The fleshly desires will not be dominating your life, but your life will be dominated by the Spirit, and thus, by God.

For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 so that ye cannot do the things that ye would (5:17).

그러니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본래의 영적인 면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이 더 이상 여러분을 통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리지는 않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5:17)

There is a warfare that goes on in the life of the believer. Once the spirit has come alive, now there comes this striving for the mastery of me. Will I be mastered by the Spirit or will I be mastered by the flesh? If I am mastered by the flesh, then I have the mind of the flesh. That is, my mind is constantly upon fleshly things. And the mind of the flesh is alienated from God; it cannot know God.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믿는 자의 삶에는 항상 전쟁이 계속됩니다. 한번 영이 살았으면 나의 지배권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 납니다. 내가 영적 지배를 받을 건가 또는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만약 내가 육의 지배를 받는다면 육의 생각을 가집니다. 즉, 나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육적인 일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육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But if my life is dominated by the Spirit, then I have the mind of the Spirit. And I'm thinking of God, and I'm thinking upon spiritual things, and the result of life and joy and peace in the holy Spirit.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life and joy and peace. The warfare going on. Am I going to yield to my flesh, or am I going to yield to the Spirit? And this comes up every day in many situations, and I have actually the choice in this situation. I can yield to my flesh and I can blow off steam and I can get in and I can fight and I can get into the striving and the whole issue. Or I can walk after the Spirit and say, "Oh Lord, it doesn't matter. Help me, Lord, to just keep the right attitude." And I can just go and pass it by.

그러나 만약에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삶의 결과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됩니다. 내가 나의 육에 굴복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성령에 복종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육신에 굴복하여 불평하며 싸움을 하며 전체적인 문제로 투쟁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가고 그 문제를 넘어갈수 있습니다.

And so, another issue arises in five minutes. Uh-huh, you did that five minutes. All right, you know. And I can choose whether or not to walk in the flesh, or then again, to commit it and walk after the Spirit. You see, it isn't a once-in-forever kind of a thing. It is once that I have reckoned myself to be crucified with Christ when I accepted Him. I was crucified with Christ, but now I have to reckon it in so many situations everyday.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5분 내에 생깁니다. 으-흠, 여러분은 그것을 5 분은 잘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으로 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말기며 성령을 좇아 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한번 하면 영원히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가지 많은 상황속에서 그것을 인정해야합니다.

"Hey, that old nature, that old Chuck is dead. Let him alone. Don't revive him. Crucified with Christ. Reckon that to be. That's just my old flesh that's upset. That's my old prideful nature. That's the old nature that wants its way, that wants to insist on its own way and all. That's the old nature, reckon that to be dead. That died with Christ. It doesn't really matter, I'm going to walk after the Spirit and I'm going to please God in this. I'm going to walk in love." And so, I have to reckon the old man to be dead each day, and oftentimes, many times through the day.

“여보시오, 그 옛 본성, 그 옛날의 척은 죽었습니다. 그냥 혼자 버려 두십시오. 다시 살리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감정이 상한 나의 옛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자존심을 가진 본성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고집하고 모든 것을 하려는 나의 옛 본성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옛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 정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좇아 행할 것이며 이 점엿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옛 사람이 매일, 하루에도 여러번, 빈번히 죽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The flesh is lusting against the Spirit.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They're contrary, and I do not always walk after the Spirit. There are times when I lapse into the flesh. I get an attitude that is not of the Lord. I say something that is not of the Lord. Do you know what happens? Immediately the Spirit speaks to me and says, "That was wrong." "Yeah, but I had the right to do it." And I'll argue with Him for a while.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taking it, Lord. I tried." And you keep dealing with me until I'll finally say, "Oh, God, I'm sorry. I was wrong. Forgive me, Lord. Help me, Lord. Thank You, Jesus, for Your forgiveness and for Your love and for Your grace to me."

육은 성령을 거스리며 정욕을 품습니다. 성령은 육신과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상반되며 내가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타락하여 육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부터 오지 않은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아십니까? 당장 성령께서 내게 말씀 하십니다, “그건 틀렸어.” “예,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잠시동안 말 다툼을 합니다. “주님께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취했는지 모르십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항복할때 까지 계속해서 나를 다루십니다, 결국 나는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게 베푸시는 당신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And I'm washed and I'm cleansed and I go on. You see, I don't always do the things that I would. But when I do fail, the Spirit is right there, and that's why I know I'm a child of God. You see, if I weren't a child of God, He would just let me go. He wouldn't bother correcting me. It's sort of comforting, you know. David said,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Psalm 23:4). The rod was the thing the shepherd used to hit the sheep on the flanks when they started getting out, you know, roaming out. All right, I'm still one of His sheep, you know. He's just whacked me with the rod. Oh, I'm comforted by that. I'm still His child. Don'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Whom the Lord loveth He chasteneth, and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Hebrews 12:6).

그래서 나는 씻기어 졌고 그리고 나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했던 것들을 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 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정확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압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었을 겁니다. 그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 하시느라 자기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은 평안이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막대기는 양 무리가 걸길로 배회하거나 가려면 목자가 양의 옆구리를 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양 무리의 한 마리입니다. 그는 그의 막대기로 나를 딱 때렸습니다. 오, 나는 그것으로 안위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징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6)

*But if ye be led by the Spirit, ye are not under the law.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manifest, which are these (5:18-19),*

And he gives to us here a listing, incomplete to be sure, because he ends it by saying, "And do such things." And so, such things leaves an unending list of things of the flesh. But he lists some of the works of the flesh. These works of the flesh, of course, are related to our body drives, so many of them.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5:18-19),

그리고 여기에 그가 우리에게 목록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끝이 없는 육신적인 것들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일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몸의 욕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sexual impurities],
[wantonness] *lasciviousness, idolatry, witchcraft* [drug abuse]
(5:19-20),

The Greek word is *pharmakeia*, translated here *witchcraft*, because in the sorceries, they're into *witchcraft*. They often use drugs, potions; the potions that you'd take, you know, and it'd have their drug related experiences.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5:20),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약을 남용하는 것과),(5:20),

헬라어로 파마케이아 (*pharmakeia*). 여기에는 마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요술에는 그들이 마법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주 마약과 독약을 사용합니다. 그 독약들을 여러분이 먹기 때문에 그들의 마약에 관한 경험이 있는 것이지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5:20)

Interesting to me that heresies is here mentioned as a part of the works of the flesh. And I was challenged by that for a while. I began to think it through and I thought, "Yes, it is a work of the flesh, because usually a person gets into heresy to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You know, you come up with some heretical teaching, you get everybody excited and everybody's listening, everybody's beginning to discuss what you're teaching. And the old flesh likes to get people excited and stirred up like that. And people to follow after me, you know. Here I've got this new twist on the scripture. No one's ever seen this before but oh, bless God, He's revealed it to us in these days. And you develop your own little following, which really appeals to your flesh. The works of the flesh.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단들이 육체의 일의 일부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나는 잠시 동안 그것으로 인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 이건 육체의 일이지. 왜냐하면 통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위해 이단에 들어가기 때문이거든.” 여러분이 어떤 이단 교리를 가르치게 될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흥분 시키면 모두가 듣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토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은 사람들이 흥분되어 선동하는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다. 여기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전에 본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최근에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육을 나타내기 당신 자신의 말을 뒤에 붙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lings, and such like
(5:21):

So, the such like covers a lot of things.

of the which I tell you before, as I have also told you in time past,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5:21).

This is indeed strong language for you who want to live after the flesh. As we go down these things here, these are the things that God will exclude from His kingdom. These things are not allowed in the kingdom of God. If you want to be a subject in God's kingdom, then you cannot do these things. You cannot be ruled and dominated by your flesh.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5:21);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많은 것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5:21)

사실 육체를 좇아 살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은 것들을 따라 내려 가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제거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Now, it is interesting, a list similar to this is given to us in Revelation the twenty-first chapter, as it tells us those who are going to be excluded

from heaven and outside were those who were doing these things: "The fearful, the unbelieving, the abominable, the murderers, the whoremongers, the sorcerers, the idolaters, and the liars," those who are outside. And so, Revelation 21:8 if you want the reference on that. And then there's another reference also in Revelation, "but outside or the dogs and adulterers and so forth."

이제 흥미 있는 일은 이와 비슷한 목록을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밖에있으며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요한 계시록 21:8)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조 할 것도 요한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등등은 성밖에 있으리라” (22:15).

This is heavy. The works of the flesh. It's a solemn warning to every one of us who would live after the flesh or would want to live after the flesh to know that you cannot do these things and inherit the kingdom of God.

But the fruit of the Spirit (5:22)

심각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육을 좇아 살려거나 또는 육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엄한 경고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5:22),

Now, “walk in the Spirit, you'll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Be led by the Spirit, you're not under the law. The law forbids these things, but the law of love also forbids them.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5:22),

이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5:16)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런 것들을 금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도 그런 것들을 금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5:22),

Now notice, works of the flesh, works plural. So all of these things fall under the category of works of the flesh, but the “fruit of the Spirit,” fruit is singular. So there’s only one real fruit of the Spirit, that is love. These other words are defining what the agape love actually is. So, joy is love’s consciousness. You ever seen a person in love and all of the joy that they have?

peace (5:22),

육체의 일들은 일들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것에 주목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들의 한 종류로 묶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사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 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사랑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한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화평 (5.:22),

You remember as Paul defined love for us in I Corinthians chapter thirteen, he uses longsuffering. “Love suffereth long and is kind.” This agape love is gentle; it is good. The word faith here is trusting. It is… it has a, perhaps, a naiveté about it in that it does trust.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정의를 내려 준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선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신뢰하는것입니다. 그 신뢰 안에는 아마도 꾸밈이 없는 천진난만함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You know I’ve been burned so many times by trusting men, but I pray, "God, never make me jaundiced." I’d rather trust and be burned than not to trust. True to the Spirit. This kind of love is a trusting love. Not to the place of being ridiculous. Some guy comes up and says, "Hey man, I got a watch, genuine made, you know. I need money to get home. Can you give me, you know, a hundred dollars for this watch?" I’m, you know, not stupid.

Meekness (5:23),

“Blessed are the meek” (Matthew 5:5).

나는 여러 번 사람을 믿다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옳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는 믿고 당하는 것이 안 믿는 것 보다 낫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십시오. 내가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 합니다. 내게 시계 값으로 한 백 달라 만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온유(5:2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5),

temperance (5:23):

Now, the word temperance is one we have a little difficulty with. We don't understand that word too much. Let's use an opposite word, intemperant. A person doesn't lose his temper. He's temperant. Now,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5:23).

절제(5:23),

절제(temperance)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썩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반대 되는 단어, 부절제, 방종(intemperate)을 썩 봅시다.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제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5:23)

I mean, if you're walking in love, what rules can you lay down? What can you say to a guy? You see, you don't need any laws. All of the bases are covered. They're covered by the fact that you're walking in love.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5:24)

내 뜻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다면 어떤 법을 나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법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24).

Paul had written in the earlier part,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Romans chapter six, “Know ye that the old man was crucified with Christ? Therefore reckon ye yourselves to be dead with Christ, but alive unto God through Him” (Romans 6:6,11). So,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with its desires]. [For]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Let us not be desirous of vainglory (5:24-26),

바울이 앞 부분에서 쓰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20). 로마서 육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6,11).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5:24-26),

Now, these men who were coming with this teaching were really out to get notches on their belts. The kind that were always talking about numbers. "We had ten thousand souls saved last week. Look at all the notches on my belt." Men that have followed after my perverse teachings. “Desirous of vainglory,”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5:26).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명성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언제나 숫자만 언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10,000 영혼을 지난주에 구원 했습니다. 나의 벨트에 찍힌 것을 보십시오.” 와우, 나의 왜곡된 가르침을 그 많은 사람이 따라 왔습니다. “헛된 영광을 바랍.”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 하지 말지니라.(5:26)

Glory, the glory of man is indeed empty; it’s vain. Don’t seek after it. You’ll be disappointed. It will create a lot of enemies. It will create a lot of envy and a lot of provocation.

영광, 사람의 영광은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망 할 겁니다. 그 헛된 영광을 추구 하면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질투와 많은 노여움을 만들어 냅니다.

Chapter 6

Bretheren, if a man be overtaken in a fault,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thyself, lest thou also be tempted (6:1).

The Bible does seem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sins and faults, though I think that the distinction is probably quite narrow. But James said that “if there’s any sick among you,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shall raise them up. And if they have committed any sins, they shall be forgiven them” (James 5:14-15). And then he said, “Now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James 5:16). Now, there is really no place in the scripture where we’re told to confess our sins one to another. We’re to confess our sins unto God. An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f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But we can confess our faults to one another.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6:1)

나는 죄와 잘못의 차이가 아마 대단히 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차이를 크게 구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14-15).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또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야고보서 5:16)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한 곳은 실제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한 일서 1:9).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서로 고

백 할 수 있습니다.

Now, a lot of people have gone into some real trouble over these confessional things, you know, where we're all going to confess our sins to each other. And a lot of hurt has come from that. A lot of damage has come from that.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I heard of three ministers who got together and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purge their consciences by confessing their sins to each other. First minister said, "Well," he said, "I have a problem with drinking." He said, "Don't anybody know this, but I keep a bottle at home all the time." He said, "I'm just a private drinker, not a social, but I'm a private drinker. And I just have to have my bottle, and every night before I go to bed I have a drink or two." Next minister said, "Well, my problem is women; I just can't seem to get free from lust. And I just really have a strong lust after women and all. It's just really terribl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And he started telling of some of the women and all. Third minister said, "Well, my sin is gossip, and I just can't wait to get out of here."

세 명의 목사가 모여서 그들 각자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써 양심을 깨끗케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말하기를 “어, 나는 술 마시는 문제로 시달립니다.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언제나 술병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교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마십니다.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한 두잔씩 마셔야 합니다.” 다음 번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어, 나의 문제는 여자입니다. 나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여자에 대한 강한 정욕을 느낍니다.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 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가 말합니다. “예, 나의 죄는 잡담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나갈때 까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You got to be careful of these confession services. You don't know who might have the sin of gossip.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I'm at fault. I was wrong. It's good to confess. It's hard. I think those are probably the three hardest words to say, "I was wrong," especially if you're talking to

your wife. You don't want to be wrong. Confess your faults. Be willing to confess when you are wrong. Be willing to confess when you've made a mistake. Confess your faults. "I was too hasty in my judgment. I spoke when I should have been silent. I was wrong when I said that."

여러분은 이런 고백 서비스들을 조심 하십시오. 누가 그 잡담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부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트리를 원치 않을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성급히 판단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켜야 했을 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것은 잘 못했습니다."

Confess your faults to one another. Now "if a brother be overtaken in a fault," and this, I believe, does refer to this business of the heresy, because it's all in context. Someone has gone out and gotten circumcised in order that they might be righteous. He's overtaken in his fault. Faulty teaching.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너희 잘못을 서로 고하라. 이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믿기는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것은 이단에 대한 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워 지기 위하여 나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으로 압도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1)

Now, I think that this can go beyond this, as far as the restoration of a brother. "If a brother be overtaken in a fault," in a faulty relationship,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Now, God's desire is not to damn the sinner, but always to restore the sinner. And if I take the attitude of damning everybody that does wrong, then I'm not taking God's attitude towards man. And it's unfortunate that many people have that concept of God, that He's wanting to damn every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Not so. God wants to restore every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형제들간의 회복에 있어서 서로 고함으로 이러한 시험을 넘을 수 있다고 나는 생

각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된 관계에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죄인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잘못된 모든 사람을 경죄한다면 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잘못된 일이 있는 자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If you have sinned, it isn't God's desire to destroy you. It's God's desire to restore you. And if I am going to be a servant of God walking in love, then I must seek to help in that restoration process. Not to push you down further. Not to say, "Oh well, I knew that guy was a flake anyhow, you know." But to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not to come in a haughty spirit. Not to come in a spirit of judgment and condemnation and lay down the heavy hand of the law upon the guy and say, "How could you do that? How could you do that, man?" But to restore him in the spirit of meekness realizing, "Hey, I'm capable of doing the same thing. Were it not for the grace of God and the power of God's Spirit, I could be guilty of the very same thing."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을 파멸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나는 그 바로 세우시는 과정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조잡스러운 사람 인 것을 나는 알았어요.” 라고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온유함 같이 원상 복귀 시키고 오만한 심령으로 하지 마십시오. 판단과 비난의 심령으로 오지 말고 그 사람 위에 율법이라는 무거운 손을 올려놓고 말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면서 자신도 “ 그렇지, 나도 그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도 같은 일을 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And so “restoring him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So,

Bear ye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 the law of Christ (6:2).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2)

He bore our burdens for us.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1 Peter 5:7). He’s willing to bear your burden, now we need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us, we fulfill the law of Christ. When one member suffers, they all suffer. And within the body, we need to have that kind of a sensitivity, whereby we can minister more effectively to each other when there is a need, when a brother is in need. When a brother is hurting, that we can stand with him and encourage them and support them, and that we bear one another’s burdens. That’s what the Lord would have us to do. S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는 우리대신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5:7). 그는 여러분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통 할 때 그들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해야 합니다. 어디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효과적으로 서로를 도와 줄수 있습니다. 형제가 필요를 요 할 때 형제가 다쳤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서서 그를 격려하고 후원해 줍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하라.”

For if a man think himself to be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th himself (6:3).

He’s not deceiving those around him.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is category who really think they are something when they are nothing. Have you ever met one of those persons? I have met so many. Self-deceived. Self-deluded.

But let every man prove his own work, and then shall he have rejoicing in himself alone, and not in another (6:4).

만일 저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6:3)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생각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 보았습니까? 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

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에 의해 현혹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6:4)

You know when God has revealed some special exciting truth to your heart, so exciting, so new, so novel, so different, and you feel that the whole body needs to share and know this truth that God has revealed to you, please do us the favor of allowing us to observe how this truth has transformed your life more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Let us see what it has done in you to make you a better servant of God. And then, when we observe the fruit of this truth in your own life, we'll come to you and ask you about it. But don't come lay your trips on us. Prove, let every man prove himself. Then you'll have something really to glory in. Let it be proved in your own life. Let us see the result as it is worked out in your life. And then you can rejoice in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감격스러운 진리를 나타내실때, 너무나 흥분이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새롭고 고귀하고 다른 이 진리를 온 교회에 나누워 알리기를 원할 때,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도록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 진리의 열매를 관찰할수 있을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에 관해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계획을 늘어 놓지 마세요.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역사할 때 그 결과를 바라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할수 있습니다.

For every man shall bear his own burden (6:5).

Now he's just told us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at is important. But you can't lay your burden on everybody else. You've got to bear your own burden, too.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are always trying to unburden themselves on everybody else so they don't have to carry it. You know, they burden everybody they get around with their burden. And then they walk away and say, "All right, now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anymore, you know. I've dumped it on somebody else." I have a lot of people

dump burdens on me. My wife said, "Why do you think God gave you broad shoulders?" I was telling her about something that was dumped on me the other day and she...not much sympathy at home, just good exhortation. Poor baby.

각각 자기 짐을 질 것 임이니라.(6:5)

이제 그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해주었으며 그것은 중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짐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울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항상 자신들의 짐을 벗어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디로 가 버리며 말하기를 “좋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게 짐을 지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넓은 어깨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내게 지어진 짐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을 했는데 - 집에서 별로 동정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훈계뿐 이지요. 딱한 일입니다.

Now, verse six is an interesting verse. And I don't want to really expound upon it. But Paul is declaring that,

Let him that is taught in the word communicate unto him that teacheth in all good things (6:6).

이제, 육 절은 참 흥미로운 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 상세히 설명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6)

The Bible says that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hire” (Luke 10:7). “Don't muzzle the ox that treads out the corn” (Deuteronomy 25:4). “The husbandman is first partaker of the fruit” (2 Timothy 2:6). And let me say that God has abundantly blessed me, and has blessed me in every way possible. He has blessed me physically, good health. He has blessed me spiritually, in my walk and relationship with Him. He has blessed me financially. He has blessed me in every possible way. And I thank God for His blessings. So I am not going to poor mouth and say, "Oh, now you should communicate to your teacher in all good things, you know, and see he's taken care of." God does take care of me. Takes care of me very well.

성경은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7) 라고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지니라.”(신명기 25:4). “수고 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디모데후서 2:6). 내가 할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 하셨습니다. 나를 신체적으로도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셨고 영적으로도 나의 행함이나 주님과 관계에도 축복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주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 한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것입니다, “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좋은 일을 여러분의 선생과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너무 잘 돌보아 주십니다.

In fact, I love to be able to go out and minister God's love and God's truth to people without charge. I've sort of independent like Paul in that way, and in that respect, and I love to go out and and people say, "Well, how much do you charge to come?" I say, "I'd never charged anybody to go." And wherever I go and people ask about expenses, I always tell them, "Look, my Father is extremely wealthy and He takes care of all of my need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aking care of me, my Father has given me a lavish expense account." God is good. And God has blessed me, for which I give Him thanks. And you have blessed me.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아무 값 없이 전할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처럼 독립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는 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럼 당신이 오시면 사례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아무 에게도 값을 치루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 봅니다. 나는 언제나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지극한 부자이신데 그가 나의 필요한 모든것을 주십니다. 그러 니 여러분은 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후하게 쓸 수 있는 통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I'll tell you, the rewards of the ministry are just fantastic. Every week I'm receiving such glorious letters from people whose lives have been blessed by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what a blessing that is to me when people share what God is doing in their lives through the Word and through the teaching of the Word. I'll tell you, I just sit there and I just am blessed, am blessed, am blessed. So, *communicate*, the word literally in

Greek means to, “in all good things,” it refers to finances and food and things of this nature. But there is communication also, just verbally, and by letters, and just a thank you many times is so rewarding. You know, you maybe have just gone through a hassle or something, you go to get the mail and then you start getting this. Of course, we also get the other kind of mail, too, but I don’t read that.

목회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축복 받는 사람들로 부터 영광스러운 편지를 매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나눌때 그것이 내게는 말할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말하지요. 나는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다 (*communicate*)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든 좋은 것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것과 음식이나 이런 종류의 것 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통 역시 그냥 구두로 하는 말과 편지로 하는 것이며 그냥 감사는 늘 값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이나 또 어려움을 겪을때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받기도 합니다만 나는 그런 것들은 읽지 않습니다.

Now, we read a little bit ago about a person who thinks he’s really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is just deceived. Paul now again says,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For he that soweth to his flesh sha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he that soweth to the Spirit shall of the Spirit reap life everlasting (6:7-8).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같이 생각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7-8)

I believe that man is sowing into the fertile field of his mind every day and you can be sowing to the flesh. It is difficult in this age not to sow to the flesh. There are so many magazines being published, the sole purpose is to feed the flesh, to excite the flesh, to excite the desires of the flesh, to incite and inflame the flesh. So many movies, so many TV programs—all designed

to sow to the flesh, to get the flesh excited. Don't be deceived. If you watch these movies, if you look at these magazines, if you feed your flesh, then you are going to reap of the flesh corruption. Don't be deceived. You cannot feed the flesh and reap of the Spirit.

내가 믿기는 사람은 매일 자기의 기름진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 이 세대는 육체에 씨를 뿌리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잡지들이 발행됩니다. 유일한 목적은 육체를 먹이기 위한 것이고 육체를 흥분 하게 만들며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며 선동하고 육체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영화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고 흥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영화를 보며 이런 잡지를 읽어서 여러분의 욕을 먹이면, 육체로 부터 썩어질것을 거두게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욕을 먹고 성령으로 부터 거둘수 없습니다.

And many of you are having problems with your flesh simply because you're sowing to the flesh. The eye gate is an important gate into the soul of man. And you are affected by what you see. You know, it's such a horrible thing to plant garbage into the computer.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눈의 문은 사람의 영혼으로 통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는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쓰레기를 컴퓨터에 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The other day as I was out in the yard working. I don't know what juices went together to create the electric spark that went across my brain, but when I was a little kid about seven years old, some dirty guy sang a dirty song. And you know, here years later, that dirty song came back into my mind. And I thought, "Oh God, that's horrible that that kind of rot was planted in my brain when I was just a little kid. And those big guys that sang that song when I was there as a little kid, polluting my mind, planting that garbage in there. And it's still there. I can't rid it out of my mind." Oh I don't...that's the first time, you know, and I haven't... I can't even remember what it was now. I just remember as a dirty song the other day that came into my mind that I heard when I was a kid. I thought, "Oh, garbage!" Of course, I immediately began to sing choruses and praised the Lord, and to put that stuff back into the garbage pit from which it came.

그저께 내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액체가 전기의 섬광을 일으켰는지

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곱 살 정도의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떤 더러운 친구가 더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더러운 노래가 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부패한 것이 나의 두뇌에 심겨졌다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 큰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며 나의 마음을 오염시켜 그곳에 쓰레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그것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냥 기억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더러운 노래였다고 기억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오, 쓰레기!” 물론 나는 즉시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그것이 나온 곳에 도로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But you're sowing. You're sowing either to your flesh, or you're sowing to your spirit. And what you sow you're going to reap. That's natural. That's life. Don't be deceived on that issue. Now, the beautiful thing is, is that we can sow to the Spirit. That's what we're doing tonight. “Thy word, O Lord, is life and it is Spirit” (John 6:63).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it's able to cut between the bone and the marrow, and between the soul and the spirit” (Hebrews 4:12). And the word of God feeds our spirits and as we sow to the Spirit, then of the Spirit we're going to reap life everlasting.

그러나 여러분은 심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심거나 또는 영에 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문제 관하여 속지 마십시오. 이제, 아름다움은 우리가 성령에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니”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먹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에 심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So what am I planting in, that is so vital, because what I'm planting in is what's going to come out. And if I'm planting to my flesh, it's going to come out of the flesh. If I'm planting to my spirit, it's going to come out of the Spirit. How important that we do more sowing to the Spirit. God help us. We're living in horrible days in many sense. We have all of these modern conveniences; all designed to take us a little further away from the Lord. To absorb our time. So easy to turn on the TV and get involved in the fantasies

of TV. Some mystery, some story, some romance. What a waste of time. So easy, isn't it? Sow to the flesh. So easy. But "don't be deceived; whatsoever a man sows, that will he also reap."

And let us not be weary in well doing: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6:9).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육에 심었다면 육으로 나올 것 이며 만약 내가 나의 영에 심었다면 성령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령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모로 무서운 나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현대판 편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빨아 먹습니다. 너무나 쉽게 TV를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의 환상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신기하고 좁은 이야기이며 좁은 로맨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육체로 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6:9)

Now, you start sowing to the Spirit and you want an immediate crop, you know. We sow to the flesh, we want God to stunt the growth, you know. "Don't let it come up, God." But if we sow to the Spirit, then we want immediate results. "Hey, Lord, I prayed about this five minutes ago. Now when you going to do something?" You know. "Be not weary in well doing." Don't give up. Don't get discouraged. "In due season, God's timing, we will reap, if we faint not." What if we faint? Well, we probably won't reap.

As we have therefore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especially unto them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6:10).

이제, 여러분은 성령에 심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즉시로 곡식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육에다 심고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심는다면 우리는 당장 그 결과를 원합니다. "보세요! 주님, 기도 한지 약 오 분이 되었습니다. 언제쯤이나 해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마십시오. 낙심 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

면 우리가 거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6:10)

Let that be our rule of life. Let's do good to all men. Now Paul writes a personal note. He said,

Ye see how large a letter I have written unto you with mine own hand (6:11).

그것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삼읍시다. 모든 사람을 선대 합시다.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노트를 적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6:11)

Most of Paul's letters were dictated, because that was just the usual way in those days. They'd have a stenographer who would write their letters for them. And most of Paul's letters were dictated. This Galatian epistle, it is thought that he wrote in his own handwriting. And so the large letter could refer to the size of the letters, because he had bad eyesight. And so, it could be that he wrote very large so he could see what he was writing. Or it is possible he is referring to the length of the letter, because if he wrote the whole letter to the Galatians in his own hand, it was a long letter for a person to write himself. So, "you see how large a letter I have written unto you with mine own hand." Again, could be a hint or an indication towards Paul's weakness of his flesh.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불러 주어 받아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이었습니다. 그들은 속기사가 있어 속기사가 그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바울의 편지도 그렇게 받아서 쓴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글씨가 편지의 모양의 크기를 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쓴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는 편지의 길이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냐하면, 만일 그가 편지 전내용의 긴 편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전체의 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의 손으로 직접 썼다면 이것은 쓰는 사람에게 편지의 전체를 자신이 쓴다면 한 사람이 쓰기엔 대단히 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6:11)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암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리는 것 일수도 있겠습니다.

As many as desire to make a fair show in the flesh, they constrain you to be circumcised; only lest they should suffer persecution for the cross of Christ (6:12).

They're going along with the crowd. They don't want to suffer the persecution for the cross of Christ, so they go ahead and preach the law of righteousness.

For neither they themselves who are circumcised keep the law; but [they] desire to have you circumcised, that they may glory in your flesh (6:13).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6:12)

그들은 군중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 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6:13)

That they may glory in their conquest, in their converts.

But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and I unto the world (6:14).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과 그들의 개종한 사람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6:14)

Forbid it, Lord, that I should boast, save in the death of Christ my God.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in anything but the cross of Jesus Christ. Not glory in the work that God has done through me, not glory in anything that I have or I have done. But glory in the work of God for me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I glory.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and I unto the world.” That is, I am dead to the world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 thing, nor uncircumcision, but a new creature (6:15).

주님, 나의 하나님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내가 자랑 하는 것을 막아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자랑하는것을 막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이나 내가 가진것을 자랑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6:14).”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6:15)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relationship. What is important is that I am a new creature in Christ. So from now on,

And as many as walk according to this rule, peace be on them, and mercy, and upon the Israel of God. From henceforth let no man trouble me [don't bug me]: for I bear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6:16-17).

이와 같은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 하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부터는 말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6:16-17)

Paul, one of the writers, I don't know, Hebrew writers said, “Ye have not yet resisted unto blood, as you were striving for the truth” (Hebrews 12:4). But Paul did. “I bear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Scarred.

Brethre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6:18).

바울, 저자 중에 한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4).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남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6:18)

Father, we thank You now for the word of God and this opportunity tonight of studying again that we might sow to the Spirit. For Lord, we want to reap of the Spirit. God, we want to walk in the Spirit. We want to be led by the Spirit. We want to live in the Spirit. We want to be controlled by the Spirit. We want the fruit of the Spirit to be evidenced in our lives. We present our bodies as a temple that Your Holy Spirit might indwell us. In Jesus' name. Amen.

God bless, fill your hearts with His Spirit, and walk in the Spirit. Sow to the Spirit that you're going to reap of the Spirit life abundant through Jesus. Hallelujah!

아버지, 감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공부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우리는 성령을 거두기를 원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관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시는 교회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성령과 행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삶을 거둘 수 있는 성령에 심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 합니다.